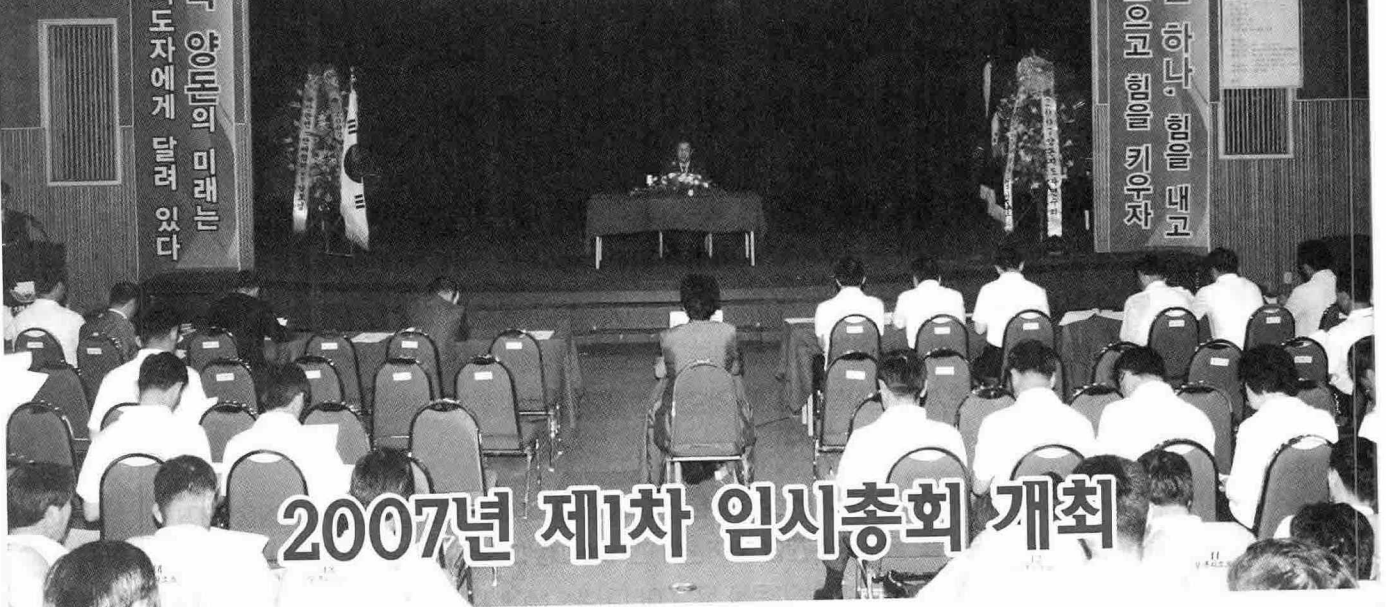


양돈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2007년 제1차 대의원 임시 총회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일자 : 2007. 5. 22

우리는 하나. 힘을 내고
힘을 모이고 힘을 키운다



2007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정관개정 승인(안) 등 5개항 원안 통과

본회는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김동환 회장 및 이병모, 하태식, 최희태, 정종극 부회장과 각 도협의회장, 각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양돈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여건아래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지금까지 농업의 어떤 품목보다 양돈지도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양돈산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양돈지도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향후 우리 협회와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지도자의 책임과 동참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본회 정선현 전무는 대의원들에게 한·미 FTA 협상 타결 관련 협회 추진 사항 등 최근 양돈산업 동향 및 본회 주요업무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또한 이날 대의원들은 기부금단체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개정은 한미 FTA 체결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양돈인들이 공익적 측면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대외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양돈분야 FTA 대책 세부 계획(안), 제1검정소 신축공사 용자금 금융대출 기채 승인(안), 자산(제1검정소) 담보 제공 승인(안), 최영열 제15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제16대 명예회장 추대 승인(안)등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양돈